

2023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23. 1. 4.(수) / 등록금심의위원회

□ 회의 개요

- 일시: 2023. 1. 4.(수) 15:00~15:21
- 장소: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8명 참석
 - 당연직(3명): 교학처장(위원장), 교학제2부처장(부위원장), 총무과장
 - 위촉직(5명): 전임교원 1명, 학생대표 2명, 학부모 1명, 전문가 1명
- ※ 예산담당 사무관(간사), 담당주무관 / 학생위원 1명 불참

□ 회의 안건

-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전학년도 대비 동결안)

□ 회의 결과

- 전학년도 대비 동결안 최종 가결(출석위원 8명 전원 동의)

□ 주요 회의 내용

- **(위원장)**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개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 간사(예산담당 사무관)에게 진행을 요청 함. [개회 시각 15:03]
- **(예산담당 사무관)** 위원소개와 202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고 하고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 **(위원장)** 보고 받은 책정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 **(전문가위원)** 학생1인당 교육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등록금을 동결 하다보면 다른 수입 예산 쪽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다른 수입원은 충분한지 질문함.
- **(예산담당사무관)** 등록금이 계속 몇 년간 동결되어 왔고 올해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등록금 동결안을 제시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동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다만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감안 해서 올해 동결안을 제시했고 학교에서는 국고라든가 다른 쪽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에도 국고 예산을 110억 정도 확보했음. 여러 가지 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림.

- **(전임교원)** 우리학교 예산 현황표를 보면 작년 대비 예비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앞으로 괜찮은 건지 질문함.
- **(예산담당사무관)** 해당 자료는 22.12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 금액을 바탕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임.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21년은 사업을 축소했지만 작년부터는 사업 지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임. 또한 예비비는 수해 등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긴급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용이고, 작년에 특히 저희 학교 서초동 교사가 수해로 크게 피해를 입었고,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가 남겨놔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필요함.
- **(위원장)** 지금 물가 수준도 그렇고 몇 년째 등록금이 동결이라서 학교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동결로 결정하게 되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노력했음.
- **(위원장)** 22년도 예비비 예산이 23년도에 비해 많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런 것인지 질문함.
- **(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일상화가 되어, 점차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라 예비비를 묶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임. 경직성 경비 (인건비, 교육 연구비, 장학금)는 조금씩 늘 수밖에 없는데 비해 수업료는 동결이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
- **(위원장)** 5페이지를 보시면 23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한도가 4.05%이하로 나와 있음. 해당 내용은 교육부에서 매년 각 대학에게 올해는 해당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음을 공지해준 것임. 최근 3개 년도를 비교

(20학년도(1.95%)→21학년도(1.2%)→22학년도(1.65%))했을 때, 올해는 굉장히 많이 올라서 4.05%까지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동결하기로 했음. 그래서 조만간 부득이하게 조금은 올려야 될 상황이 내년에는 오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올해는 학교에서 예산 운영을 잘해보도록 노력해보겠음.

- **(전문가위원)** 등록금 추이에 우리학교 말고 국립 및 사립대학이 15년부터 계속 동결인데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는지 질문함.
- **(예산담당사무관)** 해당 자료는 교육부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에 따라 작성함. 약 190개의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임.
- **(위원장)** 타 대학의 경우 동결을 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주는 보조금(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음. 그래서 다른 대학교 학부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동결하는 대신 석·박사의 등록금을 인상할 한도 범위 내에서 올리는 것 같음.
- **(학부모위원)** 타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궁금해 함.
- **(위원장)** 타 대학의 현황까지는 알아볼 수 없었고, 아마도 비슷하게 학부는 동결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석·박사는 인상한도가 4.05%로 공지되었으니,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예상됨.
- **(전문가위원)** 저희 학교도 보조금이 해당 되는지 질문함.
- **(위원장)** 저희 학교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결로 제안드립니다.
- **(예산담당사무관)** 4월 이후에는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음.
- **(학부모위원)** 타 대학 현황이 궁금한 이유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에 관심이 있음. 현재 한예종도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많이 인상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저희 학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음.
- **(위원장)** 타 대학의 경우도 학부의 등록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 같음.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고,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하기로 함.

- **(위원장)** 투표결과 출석위원 8명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 가결을 선포함.
- **(위원장)**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여쭙봄.
- **(학생위원)** 영상원 졸업예산 책정에 대해 질문함.
- **(위원장)** 원 예산은 해당 원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해당 원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음.
- **(전문가위원)** 추경예산에 대해 질문함.
- **(위원장)** 추경 예산 및 모든 예산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음.
- **(전임교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등록금을 인상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 예비비도 많이 축소되어 있고, 타 사립대의 예체능계열은 등록금이 800~900만원 대이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 같음.
- **(부위원장)** 학생대표는 비대위에서 추천을 받은 것인지 질문함. 향후 총학 구성에 대해 질문함.
- **(위원장)** 총학구성이 꼭 되었으면 좋겠음.
- **(학생위원)** 학생들도 총학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폐회 시각 15:21]